

# 사진으로 보는 고양시 이모저모

정리 편집부



#1 치매안심센터 가짜분소 운영 개시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송포동·송산동 주민들에게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짜보건지소 1층 프로그램실에 가짜분소를 2월 10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가짜분소는 만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상담, 치매조기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시에서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선물로 초콜릿 대신 꽃을 선물하도록 권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꽃 소비량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화훼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2 화훼피해농가 꽃 소비 촉진 행사 개최



#3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투어 실시

문화예술·관광·철도교통·마을공동체 담당 부서장과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2월 11일과 14일 이틀 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인 원당, 능곡, 화전, 삼송, 일산지역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투어는 지역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2월 13일, 올해 첫 일자리 추진전략 회의가 28청춘창업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제1부시장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시가 진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의 추진을 위한 토론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2020년 첫 일자리 추진전략 회의 개최



#5 옛 능곡역사 '토당 문화플랫폼' 리모델링

옛 능곡역사 용지와 건물을 매입해 2월 초부터 새 단장에 들어갔다. 토당동 옛 능곡역사는 지어진 지 50여 년이 된 건축물로 2004년 영업 중지 후 관리가 되지 않았다.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문화복합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물가서포터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와 손소독제 부담 가격인상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대규모점포, 편의점, 약국 등을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6 마스크·손소독제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가격실태 특별점검 실시